

# 창원시, 산·학·연·관 AI 추진전략 보고회 개최

### 인공지능 산업 육성 통해 창원 재도약·대혁신 기대 사업 확장해 2023년 까지 AI 스마트 공장 확산 목표

경남 창원시는 지난 22일 시청 시청회의실에서 경제전략회의를 갖고 '창원시 인공지능 추진전략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 한국전기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 및 정보산업진흥본부, 경남창원스마트산업단지사업단, 창원산업진흥원, 전자부품연구원 등남권 지역본부, 창원대, 경남대 등 창원시 소재 혁신기관 대표 및 관계자와 창원시 실국소장들이 참석했다.

보고회는 산·학·연·관 이 머리를 맞대고 인공지능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창

원 인공지능 산업육성의 로드맵이 제시됐으며 창원시와 한국전기연구원은 스마트 제조 AI와 헬스케어·의료 AI를 큰 축으로 창원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해 연구개발, 교육, 기술을 집적해 인공지능 혁신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마트 제조 AI 분야에서는 창원형 인공지능 대표 공장을 구축하고 고차 제조 AI 카테고리별 시범 공장을 선정해 문제해결형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 중에 있으며 사업을 확대해 2023년까지 AI 스마트 공장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창원시와 한국전기연

구원, 캐나다 워털루대학교 협업을 추진되고 있으며 상반기 창원 인공지능 연구센터 개소와 하반기 캐나다 워털루대학교 소재 한-캐 인공지능 공동연구센터 개소로 한국과 캐나다 양국에 혁신의 기반을 마련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공장 고도화 사업과 중소기업형 등대공장 사업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헬스케어·의료 AI 분야에서 창원시와 한국전기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의 주요기술인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해 일상생활 어디에서든, 근로자부터 고령자까지 누구나 이용가능한 시민 친화



전주기 헬스케어 제공을 목표로 인공지능 기반의 헬스케어 디바이스 및 콘텐츠 개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한국전기연구원, 삼성창원병원, 이엔텍, 엔텍글로벌, 비트컴퓨터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AI기

술을 활용한 IoT기반 스마트 방문 간호 및 모니터링 서비스 검증 사업을 기획, 과거부 '2020 사물인터넷 제품·서비스 검증·확산 공모사업'을 신청해 최종 선정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연내에 행정 내부의 인공

지능 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직원대상 인공지능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AI 시민체감 아이디어 공모사업과 AI 컨퍼런스를 개최해 인공지능 혁신 분위기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오유나 기자

## 강원도, 안심관광 특별대책...발열체크 의무대상 업소 모집

강원도는 지난 22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대비 안심관광 특별 대책으로 발열체크 의무대상 업소를 모집·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강원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3월24일부터 시작한 '클린 강원만들기 캠페인' (1단계)과, '강원셀프클린업' (2단

계) 운영에 이은 3단계 사업이다. '클린 강원만들기 캠페인'은 지난달 24~30일 도내 1만여 명의 인력이 자원해 도내 곳곳을 소독 및 방역을 실시했다. '강원셀프클린업' 운영으로 지난달 24일부터 도내 숙박시설과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2100곳이

매일 소독 및 방역을 실천하고 있다. 발열체크 의무대상 업소는 밀폐된 실내 업소를 중심으로 업주, 종업원, 손님 등 모든 대상의 주기적인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발열 등을 동반한 의심자를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격리하

다. 강원도는 사업 추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광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주요 관광시설 및 숙박시설, 음식점, 커피숍, 제과점 등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에서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방문 출입자에 대해 정확한 데이터 확보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업소 방문시마다 기록되는 개인별 발열 상황을 간편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과 시스템을 구축해 이달말부터 운영계획이다. 발열체크 의무대상 업소는 도내 5개 지역(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을 대상으로 시범 모집·운영하고, 향후 18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참가 업소에는 발열체크를 위한 체온계, 전자스탬프, 알콜스왑(핸드폰소독), 텀탈마스크, 인중

스티커, 포스터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안심 업소로 홍보할 예정이다. 김창규 도 관광마케팅과장은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완화와 외국 관광이 어려워짐에 따라 강원도를 찾는 국내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이슬 기자



밭 농사에 한창 지난 22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밭에서 농민이 농사를 준비하고 있다.

## 변리사회, IP 중심 창업 생태계 지원...엑셀러레이터協과 협약

대한변리사회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핀테크 랩에서 한국엑셀러레이터협회와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 중심의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엑셀러레이터는 2016년 이후 꾸준히 증가, 현재 230곳이 등록돼 있다. 엑셀러레이터는 스타트업의 핵심 경쟁력인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자문이나



평가에 어려움이 있어 해당 분야 변리사의 IP 상담이나 조언이 필요

요한 상황이다. 변리사회는 한국엑셀러레이터협회와 함께 '엑셀러레이터 연계 Biz IP 공익사업'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IP전략을 지원하는 등 IP 중심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변리사회는 가입 회원들이 '엑셀러레이터 전담 IP 어드바이저'로 활동하며 다양한 스타트업을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스타트업 투자시 IP 실사 및 조언 △국내외 특허전략 수립 △IP 분쟁 해결 △IP 활용 방안 지원 등이다.

최이슬 기자

## 세종 집현리 공동캠퍼스 건축 내년 착공...2023년 준공

올해 말 입주대학 모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 집현리(4·2생활권)에 대학용지를 조성해 '공동캠퍼스' 건축공사를 내년 착공해 2023년 준공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산학연 클러스터는 기업·연구소가 집적되는 '세종테크밸리'와 대학 유치를 위한 '공동캠퍼스', 기업·대학·연구소가 복합되는 동시에 이들의 주거·상업 등 생활권 수요를 지원하는 '캠퍼스타운'으로 구성한다.

공동캠퍼스는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공동으로 교사와 지원시설을 이용해 입주기관간 융합 교육과 연구가 가능한 캠퍼스이며 인재양성과 연구 개발을 통해 산학연 클러스터를 지원한다. 행복청은 지난 2월 선정한 '공동캠퍼스' 설계공모 당선작을 반영해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을 8월까지 마치고 9월 실시설계에 착수해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동캠퍼스 용지 조성공사와 임대형 교사시설, 공동시설에 대한 건축 공사는 내년 7월 시작해 2023

년 12월까지 준공한다. 행복청은 올해 하반기까지 공동캠퍼스 입주대학 모집 공고를 실행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입주 희망대학들에 대한 심사절차를 거쳐 입주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복청은 공동캠퍼스의 운영을 맡을 공익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지방행정발전연구원과 함께 12월까지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설립·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공동캠퍼스를 제외한 대학부지, 간선급행도로(BRT) 변

공원, 상가와 연구시설 용지 등 전체면적 약 95만9000㎡에 대해 대학·연구·산업과 주거·상업 등이 융복합된 동시에 공동캠퍼스와의 연계를 고려한 캠퍼스타운의 밀집과 개발 방향을 마련 중이다. 앞서 행복청은 행복도시 집현리에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해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의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안정희 행복청 도시성장추진과장은 "공동캠퍼스 사업을 통해 행복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에서 대학, 기업, 연구기관이 협력·발전하는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윤호 기자

## 전북도, 우기철 대비 배수펌프장 현장점검

전북도는 다가오는 우기철을 대비해 지역 내 배수펌프장 103개소에 대한 사전 점검에 돌입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에 따른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현재 14개 시·군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 중인 도내 배수펌프장은 총 103개소다. 우선 오는 29일까지는 각 시·군 등이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점검결과에 대한 미흡사항 및 실제 확인을 위해 다음달 4일부터

8일까지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배수펌프장 정상가동 여부 △배수펌프장 인력 배치,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근무수칙, 점검대상 현장비치 확인 △지침에 따른 정기점검 실시 여부, 주요시설 설비 관리상태 등이다. 도는 현장점검에서 발견된 미흡 사항에 대해 우기가 시작되기 전인 5월 중순까지 보수·보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강이라 기자

## 완주군, 아파트 유희공간 활용해 버섯재배

전북 완주군은 용진 원주, 삼례 동원, 이서 하늘가 아파트 지하공간에 표고버섯 재배를 위한 배지(종균) 입식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표고버섯 재배는 아파트 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형성을 위해 진행되는 르네상스사업 주민참여 일자리형 중 하나다. 아파트 유희공간을 활용,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것으로 2018년부터 스마트팜 LED등을 이용해 재배하고 있다. 주민들은 직접 지하공간에서 무

농약으로 키운 친환경 표고버섯을 키우고 이를 판매해 수익금 등을 이웃을 위해 쓴다. 이명숙 완주아파트 버섯나라공동체 대표는 "버섯재배로 경로당의 소일거리가 생겨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며 "버섯이 수확되면 주민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쁨이 크다"고 말했다. 박성일 군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공동체 활동이 어려운 시기지만, 어르신들의 소일거리 활동으로 아파트에 활기가 생길 바란다"



며 "지속적인 공동체 활동 과 교육을 통해 재배노하우를 익혀 만족할

만한 수확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